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은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 이론을 지지하여

양선이*

【요약】

이 논문에서 나는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을 통해 두 상반되는 감정들, 예컨대 공포와 기쁨이라는 감정이 한 주제에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위험을 느끼면서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등산의 경우와 같이 감정적으로 양가적인 상황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어떤 이가 공포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감정에 관한 현대 인지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양가적 감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의 지향적 내용이 명제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희열을 느끼는 공포와 같은 경우에 있어 우리는 p&-p라는 모순적 상태에 있게 된다.

인지주의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지각이론을 통해 위험성과 매력적임이 상호 배타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볼 것이다. 나는 프린츠의 ‘유인가’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프린츠는 유인가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 기제인 처벌과 보상 표지와 동일시한다. 나는 프린츠를 대신해 유인가 개념을 활용하면 우리의 예인 위험한 등산의 경우처럼 ‘희열을 느끼는 공포’와 같은 양가적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주제어】 양가감정, 프린츠, 지각이론, 체현된 평가, 유인가 표지, 비인지주의

*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413-A00002)

I. 문제제기: 양가감정(Ambivalent Emotion)의 문제

양가감정이란 서로 모순적인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절친한 친구와 함께 지원한 모 대기업에 친구는 합격한 반면 나는 합격하지 못했다면 나는 친구의 합격에 대해 축하하는 마음에서 기쁘면서도, 나의 불행에 대해 실망과 함께 슬픈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감정철학에서 양가감정의 문제는 감정에 관한 강한 인지주의로 분류되는 판단주의를 주창한 솔로몬의 입장¹⁾에 반대하여 그린스팬이 제기 했다.²⁾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에 따르면 인지적 믿음이나 판단이 감정 그 자체이거나 감정의 필수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그린스팬이 보기에 감정이 믿음이나 판단으로 구성된다면 양가감정의 사례에 있어 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³⁾ 즉 양가감정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모순되는 평가적 판단 또는 믿음이 대립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나는 그가 합격한 것을 좋아한다(그의 합격을 좋다고 판단한다)
 나는 그의 합격을 나빠한다(그의 합격을 나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린스팬에 따르면 판단주의자들은 판단의 이유를 부여함으로써

-
- 1) 감정에 관한 판단주의란 감정을 평가적 판단이나 믿음과 동일시하는 견해를 말한다. 이러한 견해의 연원은 스토아학과에서 찾을 수 있고 현대의 대표적 신 스토아주의자인 누스뎀과 샤프트르주의자인 솔로몬을 들 수 있다. R. C. Solomon, *The Passions*, New York, Doubleday, (1976); Solomon, "Emotion and Choices", in A. Rorty (ed.), *Explaining Emo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M. C. Nussbaum, *Upheavals of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1)등을 참조하라.
 - 2) P. Greenspan(1980), "A Case of Mixed Feeling: Ambivalence and the Logic of Emotion". in *Explaining Emotions*, ed. A. O. Ror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3) Greenspan, *Ibid.*, 231.

양가적 판단이 모순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양가감정을 판단의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시도 한다. 이를 우리의 예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

친구의 승리는 내가 공감하는 누군가의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좋다.

그의 승리는 나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킨다는 점에서 나쁘다.

우리의 양가감정이 이처럼 어떤 사태와 사건에 대한 ‘일면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판단으로 양가감정을 분석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린스팬에 따르면 양가감정을 일종의 일면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 과거의 일면적 판단을 떠나, 일면적 판단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결국 하나의 사태나 사건에 대한 현재의 ‘하나의 판단’이 생성되었다고 해보자. 하지만 양가감정은 그러한 판단에 수렴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만일 강한 인지주의자인 판단주의자들 처럼 감정이 판단으로 구성되거나 동일시된다면, 판단이 하나로 수렴될 때, 감정도 하나로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스팬이 보기에 양가감정의 경우, 판단은 하나더라도 여전히 감정은 두 개일 것이며, 따라서 판단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판단주의는 양가감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양가감정이란 결국 감정 주체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판단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동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위의 사례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태나 사건에 대해 하나의 판단을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된다.⁵⁾

이상과 같은 판단주의에 대한 그린스팬의 주된 공격은 반대되는 두 판단은 동시에 참일 수(true) 없지만 반대 감정 둘은 동시에 적절할 수 (appropriate)

4) Ibid., 232.

5) Ibid., 231.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믿음(판단)의 경우, 양립 불가능한 두 믿음 중 하나만이 참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만이 성공적일 수 있지만 양립 불가능한 욕구나 감정들의 경우 하나만이 유일하게 성공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스팬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람은 동일한 사태에 대해, 예컨대 p라는 명제 즉, 나의 라이벌이면서 동시에 친구인 철수가 나 대신 복권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기쁘면서 동시에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한 측면에서 보면 좋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p라는 명제에 대해 기쁘다는 것은 p가 어떤 면에서 좋을 때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동일한 p에 관해 기쁘지 않는 것 또한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양립가능하다. 왜냐하면 위의 예에서 복권 당첨한 그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복권 당첨한 것이 좋긴 하지만 동시에 내 대신 그가 거금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스팬은 주장하길, 만일 이것이 옳다면 감정은 평가적 판단(믿음)과 다르다. 왜냐하면 감정을 평가적 판단 또는 믿음이라고 보면 p라는 명제가 좋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나쁘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스팬에 의하면 두 반대되는 감정은 동시에 적절할 수 있지만 반대되는 판단은 동시에 참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함(being appropriateness)은 참임(being true)과 다르다고 주장한다.⁶⁾ 그린스팬의 판단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감정의 논리와 판단의 논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그녀의 저서에서 그린스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우리는 증거적 보증으로서 합리적 적절성과 사회적 또는 도덕적 규범에 적합(fit)하냐 하지 못하냐는 것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적절성을 구별하여야 한다.”⁷⁾ 여기서 그린스팬은 감정의 적절성을 후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6) Ibid., 234.

7) Greenspan(2003), “Emotion, Rationality, and Mind/Body”, in Anthony Hatzimoyssis (ed.), *Philosophy and the Emo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0.

최근에 모턴과 태플렛도 양가감정의 문제를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린스팬이 판단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양가감정의 문제를 다룬 반면, 모턴과 태플렛은 지각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이 감정을 다룬다.⁸⁾ 모턴과 태플렛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감정을 평가적 판단으로 보지 않고 지각과 유사한 것으로 보면 양가감정은 모순적인 것이 아닌 상태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나의 목적은 감정에 관한 지각 이론에 입각하여 양가감정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양가감정을 다루는데 있어 그린스팬처럼 감정에 관한 판단주의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각 이론이 판단주의가 부딪히는 감정모순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지지하고자 하는 지각 이론은 모턴이나 태플렛이 따르고 있는 인지주의 지각 이론⁹⁾과 달리, 제시 프린츠(2003, 2004, 2010)의 비인지주의 지각이론이라는 점에서 다르다.¹⁰⁾ 이하 나는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 지각이론에서 그린스팬이 제기한 양가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인 후,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지각이론 모델을 통해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인지주의 지각이론에서

8) A. Morton(2002), "Emotional Accurac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 Vol. 76. 265-75; C. Tappolet (2005), "Ambivalent Emotions and the Perceptual Account of Emotions", *Analysis* 65, 230.

9) 태플렛이 따르고 있는 지각이론은 드 수자(1987)의 인지주의 지각이론이다. Ronald de Sousa (1987) *The Rationality of Emotion*, Cambridge, Mass., London: IT Press, 543-51. ; (2002), "Emotional Truth",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76, 247-64.; (2002), "Emotions: What I Know, What I'd Like to Think I Know, and What I'd Like to Think", in *Thinking about Feeling*, ed. R. Solomon. Oxford University Press, 61-75.

10) J. Prinz(2004),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Vol. 2. No.1. 5-13.

양가감정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II.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 지각이론과 양가감정의 문제

먼저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 지각모델을 토대로 하여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플렛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녀는 이를 위해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충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한 듯 보이는 상황을 제시한다. 그녀의 감정에 관한 지각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은 두 가지 가치, 예컨대, “위험성(dangerousness)”과 “매력적임(attractiveness)”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드러낸다. 유사한 맥락에서 모턴은 감정은 참(truth)과 아주 유사한 것일 수 있지만, 참 보다는 정확성(accuracy)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감정에 관해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두 반대 감정, 예컨대, “공포(fear)”와 “유쾌함(delightfulness)”이 동일한 주체에 공존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11)

태플렛은 공포와 매력이라는 속성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은 양가감정이 갖고 있다고 제기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턴 역시 이 문제를 인지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즉,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공포스러움과 매력적임이라는 속성 둘 다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포과 매력과 같은 감정이 동시에 발현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진화상 우리의 감정이 보다 발전되고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그 상황이 갖는 속성들 둘 다를 동시에 드러내는 “희열을 느끼는 공포(delighted horror)”와 같은 “미묘한 감정(subtle emotions)”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다.¹²⁾ 그러나 감정에 관한 지각 이론가들이

11) A. Morton(2002), 274-275.

모턴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들은 “미묘한 감정” 즉 “희열을 느끼는 공포”와 같은 감정의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이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한다.¹³⁾ 그것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매력적임(the attractiveness of danger)” 인가 “매력적임에 대한 위험성” 인가? 지각이론은 이와 같은 “미묘한 감정”에 대한 “형식적 대상”을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미묘한 감정들이 관련된 둘 다의 속성을 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방식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속성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혼합 감정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각각이 서로 다른 한에서 그 각각은 서로 다른 형식적 대상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논문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기에 이 논문에서 나는 이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태플렛의 해결책에만 주목해 보겠다. 태플렛은 모턴의 “미묘한 감정”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도전에 응수할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태플렛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당신이 아주 위험한 등산로를 따라 걷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특히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을 때, (물론 안전장치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특정한 종류의 감정을 발현할 것이다. 첫째, 당신은 경악스런 공포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안전장치가 잘못될 경우 한 발짝 더 내디디면 곧 바로 추락하여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당신은 한 발짝 더 나갈 것에 대해 아주 강한 매력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황홀한 경치에 매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12) Morton, Ibid., 274-275.

13) 감정을 유발하는 세계 속의 다양한 대상들은 구체적 대상(particular object)이며, 그 구체적 대상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형식적 대상(formal object)이다. 공포에 대한 사자, 슬픔에 대한 가족이나 연인의 죽음 등은 구체적 대상이다. 그리고 구체적 대상들의 공통적인 속성 즉 공포에 대한 위험, 슬픔에 대한 상실이 바로 형식적 대상이다. Prinz(2004b), 62.

14) Tappolet(2005), 230.

만일 어떤 이가 이와 같이 두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면, 그 사람은 모순적 상태에 있다고 말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지각이론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지각이론가들은 이와 같은 양가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양가감정이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태플릿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제시한다.

- (1) 위험과 매력적임의 속성들은 둘 다 실제로 나타난다.
- (2) 위험성과 매력적임이라는 속성이 동일한 상황 S에 귀속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속성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포와 매혹적임이라는 감정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3) 그러나 위의 예(등산의 예)는 실제로 그와 같은 속성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4) 따라서 감정은 참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위험과 매력적임이 양립불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태플릿에 따르면 모턴은 이 둘이 양립 가능함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태플릿의 등산의 예와 유사한 경우인 번지점프의 상황 S를 고려해 보자. 당신은 번지점프대에 서 있다. 번지점프를 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리라는 사실과 주변 풍경의 아름다움 때문에 당신은 번지점프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매력을 느낀다. 한편으로, 당신은 번지점프를 하는 것이 공포스럽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는 하지만, 번지점프 줄이 끊어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신은 번지점프를 하는 것(S)에 매혹되었으면서도 공포를 느끼고 있다. S는 위험하면서 동시에 매력적이다. 당신이 S에 대한 이 두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태플릿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가령 위험하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해질 수 있다면, 여기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¹⁵⁾ 즉, 태플릿에 따르면 동일한 대상은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S에 대해 공포와 매혹됨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테플렛은 1) 위험과 매력적임을 “양가느낌(ambivalent feeling)”으로 보면 두 느낌은 양립 불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혹은 2)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P) 동시에(&)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P) 경우도 모순이 가능하다(P&-P).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당신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매력을 느끼는 것, 즉 그 상황이 매력적이라고 경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위험성에 대해 표상한다는 점에서 공포의 형식적 대상에 향해 있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짜릿하게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테플렛은 위험한줄 알면서도(믿으면서도) 매혹을 느낌은 공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마치 ‘최선의 판단’에 반해서 욕구하는 데로 행동하는 ‘아크라시아’의 경와 같이 비합리적 감정이라고 부른다. 즉 드 수자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비합리성은 위험하다는 판단(또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혹적임이라는 느낌에 주의 집중되어 위험에 대한 판단이 기각됨으로써 생길 수 있다.¹⁵⁾

이 후 나는 양가감정을 단지 감정들 사이의 갈등이나 불일치로 봐서는 안되며, 이미 존재하는 감정들의 감정가 또는 유인가(valence)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즉 양가감정은 두 상반되는 감정들의 감정가 또는 유인가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으로 인해 어느 한쪽을 택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위로 연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개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을 지속하는 중독환자들이나 위험한 스포츠를 탐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양가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15) Tappolet(2005), 231.

16) de Sousa(1987), Tappolet(2003).

이제 다음 장에서 양가감정을 감정과 감정가 사이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프린츠의 이론에서 찾고자 한다. 프린츠는 감정을 주체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체현된 평가(Embodied Appraisal)”라고 정의하지만 그럴 경우, 주체의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스포츠들이 왜 주체들에게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 긍정적 강화인 보상으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체현된 평가라는 감정과 보상/처벌에 따른 강화인 유인가(감정가) 사이의 관계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들의 관계규명을 통해 감정이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양가감정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지각이론과 양가감정의 문제

1.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

프린츠(Jesse Prinz)에 따르면 감정은 그것이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체현된(embodied) 평가이다.¹⁷⁾ 평가로서의 감정은 유기체가 자신의 안녕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신과 세계사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린츠는 자기자신의 안녕과 관련하여 환경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평가가 인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여기서 프린츠는 왜 평가가 인지적인 것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그는

17) Jesse Prinz(2003), “Emotion, Psychosomatics, and Embodied Appraisals”, in A. Hatzimoysis (ed.), *Emotion and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a) “Embodied Emotions”, in *Thinking about Fe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4b)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드레츠키의 표상이론을 받아들인다. 드레츠키에 따르면 심적 표상은 어떤 것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된 상태이며, 진화나 학습을 통해 그것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¹⁸⁾ 이를 감정에 적용해 보면, 감정은 “위험(danger)”과 “상실(loss)”과 같이 감정을 유발하는 공통적인 속성들인 “핵심 관련 주제들(core relational theme)”을 표상한다.¹⁹⁾ 예컨대, 분노라는 감정은 나와 내 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들이 존재했을 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주제(theme)와 상응한다. 핵심관련 주제에 대한 표상과 비인지적 구성요소라 볼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적 반응인 체현된 상태, 이 두 요소를 결합하면 프린츠의 “체현된 평가 이론”이 된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한편으로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나타내는 내적 상태, 즉 “체현된 상태”이다. 다른 한편으로, “체현된 상태는 핵심주제를 재현한다. 왜냐하면 체현된 상태는 핵심 주제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솔로몬이나 누스뱌과 같은 판단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 또는 “판단”이라는 용어를 택해야만 한다고 프린츠는 제안한다. 프린츠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판단이란 개념을 우리의 안녕과 관계있는 유기체-환경의 관계를 표상하는 어떤 정신적 상태로 규정한다면, 체현된 상태는 이와 같은 상태로 특징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²¹⁾ 평가를 평가적 판단으로 규정한 판단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린츠는 평가를 “행복과 안녕을 산출하는 유기체 환경 관계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간주한다.²²⁾ 따라서 프린츠는 주장하길, 만일 우리가

18) F. Dretske(1986) 참조.

19) ‘핵심관련 주제’라는 용어는 라자루스(R. S. Lazarus)가 강한 인지주의를 피하면서 인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라자루스는 개인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 판단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지각하고 나서 인지적 판단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감정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지적 판단은 개념적이며 신체와 무관하다. R. S. Lazaru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 Prinz(2003), 80.

21) Ibid.

판단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체현된 상태는 “체현된 판단”이다.

감정에 관한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지각이론을 이상과 같이 간략히 이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신체적 변화와 핵심관련주제는 감정과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프린츠의 대답은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등록(register)함으로써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represent)”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심장 박동 수가 증가하고 뺨이 빨개지는 것을 등록함으로써 어떤 행동이 공격적임을 우리는 표상하게 된다. 여기서 프린츠는 감정이 표상하는 핵심관련주제를 “실질적 내용(real content)”이라 보고, 이는 세계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이라 본다. 반면 감정이 등록하는 신체적 변화는 “명목적 내용(nominal content)”으로, 이는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²³⁾이라 보며 이 두 기준을 감정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산 길을 가다 독사를 만난 경우, 이 때 독사의 눈빛이나 혀의 움직임은 보고 나는 나(유기체)의 평안과 안전이 위협받음으로써 핵심관련주제인 “위협”을 표상하게 되어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 때 공포의 실질적 내용인 “위협”은 유기체와 세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핵심관련주제인 형식적 대상이다. 반면, 외부의 위협스러운 상황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상대적으로 내적으로 결정된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신체의 생리적 변화 양식은 명목적 내용이다.

프린츠는 자신의 체현된 평가 이론이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에 대한 수정된 견해라고 한다. 프린츠가 제임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한편으로 제임스에게 있어 감정은 일정한 패턴을 갖는 신체적 감각의 복합체이라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때때로 감정은 항상 의식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²⁴⁾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은 제임스가 제안한 것처럼, 몸을 통해 구현된다. 그는 말하길, 한편으로 “감정은 우리 신체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지각이며,

22) Prinz(2004a), 57.

23) Prinz(2000), 1.

24) 프린츠의 감정이론에서 제임스로부터 물려받은 점에 대해서는 양선이(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참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평가(appraisal)이다.”²⁵⁾ 그렇다면 판단주의(judgmentalism)와 프린츠의 이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프린츠에 따르면, 판단주의자들은 평가를 평가적 판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프린츠 자신은 평가를 “리의 안녕과 관련이 있는 유기체-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본다.²⁶⁾ 신체적 지각이 유기체-환경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은 “올바른 인과적 관계”를 통해서이지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description)을 통해서”가 아니다.²⁷⁾

이상과 같이 프린츠의 비인지주의 지각 이론을 이해했을 때, 이러한 이론은 양가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프린츠의 유인가(Valence)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체현된 평가” 이론은 감정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에 관한 설명인데, 감정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감정이 행위의 동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프린츠는 감정이 어떻게 행동에 대한 이유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유인가 표지 이론을 추가로 제시한다. 따라서 프린츠의 감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인가 표지 이론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 나는 우리의 주제인 양가감정의 문제가 유인가 표지와 체현된 평가 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해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2. 유인가 표지(Valence Maker)이론

감정 철학에서 유인가 개념을 처음으로 다룬 사람은 솔로몬이다.²⁸⁾ 솔로몬

25) Prinz(2004a), 57.

26) Prinz, Ibid.

27) Prinz, Ibid.

28) R. C. Solomon(2001), “Against Valence”, in R. C. Solomon, *Not Passion's Sla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35-147.

은 모든 감정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며, 대부분 감정이 유인가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주의자로서 그는 감정은 유인가적 평가(Valenced Appraisal)라고 주장한다. 한편 프린츠는 솔로몬의 인지주의에 반대해 유인가 개념에 관해 비인지주의 입장을 택하면서 환원주의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의식적 차원에서는 유인가를 부정할 수 있지만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두 차원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무의식적 두뇌사건이 의식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⁹⁾

부정적 감정은 나쁘게 느끼는 것이고 긍정적 감정은 좋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정적 감정에 들어있는 부정적 느낌(negative feeling)은 무엇인가? 혹자는 그것은 고통(Pain)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를 부정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고통은 물리적으로 감각에 국지화시킬 수 있지만 부정적 감정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정적 느낌은 아마도 괴로움(suffering)과 동일시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부정적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비애(grief), 질투심(jalousy), 죄책감(guilt), 좌절감(frustration) 등 부정적 감정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감정들 각각에 결부된 괴로움(suffering)은 서로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괴로움에 연루되는데, 그 이유는 괴로움은 감각이 아니라 “의미(meaning)”와 “해석(interpretation)”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주장한다. 따라서 솔로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은 그 의미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고통을 줄 것이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이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감정의 경우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긍정적 감정은

29) J. Prinz(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5-13.

서로 다른 의미와 해석에 의존하여 서로 다른 형태의 쾌락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쾌락을 느낄 것이라 가정할 필요가 없다.³⁰⁾

프린츠는 유인가가 왜냐고 고통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솔로몬의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솔로몬이 부정적 감정(또는 긍정적 감정) 각각이 달리 느껴지는 이유가 감정적 “의미” 또는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고 본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솔로몬과 프린츠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점은 유인가는 쾌락과 고통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쾌락(pleasure)과 고통(pain)은 서로 다른 감정들, 즉 각각의 부정적 감정들 또는 각각의 긍정적 감정들에 통일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감정이 현상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³¹⁾

유인가가 왜냐고 고통과 동일시 될 수 없다면, 첫 번째 대안은 접근(approach)과 회피(avoid)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대한 행동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긍정적 감정은 접근하려는 성향과 관련되고 부정적 감정은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우리는 수치스러울 때 숨고자 하며 두려울 때 도망가고자 하는데, 이는 곧 회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행동주의적 유인가 개념도 부정한다. 이를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반례를 든다. 화(anger)는 대표적으로 부정적 감정이지만, 반대로 접근 행동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만든 사람에 대적하여 그들에게 공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공포(fear)는 종종 회피와 관련되지만 그러한 감정은 또한 그 대상에 맞서 극복하고자 싸우기도 한다. 비애(grief)는 어떤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나 위로가 될 상황을 찾기도 한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접근”과

30) R. C. Solomon(2001), 135-147.

31) Prinz(2010), 7

“회피”와 무관한 감정의 리스트로 기쁨, 질투심, 선망 또는 죄책감을 들고 있다.³²⁾

프린츠도 솔로몬에 동의하여 각각의 감정들과 관련된 행동의 다양성을 볼 때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접근”과 “회피”라는 경향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러 실험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행동주의적 유인가 이론은 유인가와 행위사이의 어떤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프린츠는 유인가 개념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프린츠는 유인가 개념을 2004년 그의 저서 *Gut Reaction*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뇌 내부에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강화하는 쌍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극에 대한 표상과 연관되는 상태이다. 주된 강화인자(primary reinforcers)는 내적 강화인자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온 자극이며, 이차적 강화인자는 그와 같은 연관을 아는 자극이다. 이와 같은 내적 강화는 유인가 표지(Valence Marker)이다. 부정적인 유인가 표지 상태는 부정적 내적 강화인자(INR)를 포함하는 상태이고 긍정적 유인가 표지 상태는 긍정적인 내적 강화인자(IPR)를 포함한다.³³⁾

프린츠에 따르면, 이와 같은 IPR과 INR은 “내적인 명령어”로 작용한다. 전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더 하도록 종용하는 반면, 후자는 어떤 것으로부터 물러나도록 명령한다. 긍정적 감정은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부정적 감정은 우리가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이 부정적으로 강화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기를 시도할 수 있으며, 어떤 대상이 긍정적으로 강화되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프린츠는 최근(2010) 논문 [For Valence]에서 “부정적 내적 강화인자”와

32) Solomon, Ibid., 137.

33) Prinz(2004b), 173.

34) Ibid., 174참조.

‘긍정적 내적 강화인자’ 개념이 행동주의적 색채를 떨 수 있다고 하여 그 개념 대신 처벌(punishment)과 보상(reward) 표지(Marker)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³⁵⁾ 내적강화(Inner Reinforcement) 개념은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벌과 보상 표지”는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말하길, 처벌과 보상 표지는 행동에 있어 더하거나 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낮빛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상태에 있게 되는데, 프린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신체적 요소는 행동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며, 유인가 표지는 우리에게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갖도록 한다. 즉 분노의 경우 우리의 신체 변화는 공격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유인가 표지는 우리가 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지(긍정적 유인가) 혹은 변화시켜야 하는지(부정적 유인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동은 선택되지 않는다.³⁶⁾ 이런 점에서 “처벌과 보상 표지”로서 유인가 표지는 내적인 상태로서 행동의 동기나 이유를 말하는 것이지 행동 그 자체는 아니다.

여기서 프린츠는 유인가 개념을 각각의 감정에 본래적인(내재적인) 특성으로 보지 말고, 대신 각각의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attitude)로 보자고 제안한다.³⁷⁾ 이런 점에서 유인가 표지는 가치반응 의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체현된 평가로서의 감정”은 유기체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유기체와 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신체 변화에 대한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 때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표상하는 핵심관련주제들은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선호의 가치와 무관하다. 그렇다면 프린츠가 제시한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의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만일 둘다가 평가와 관련된다면 두 평가체계는 동등한가? 아니면 어느 체계가 다른 체계에 우선하는가?

35) Prinz(2010), 10.

36) Prinz(2004b), 194.

37) Prinz(2010), 8.

앞서도 언급했듯이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의 지향적 대상은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핵심관련주제이며 신체적 변화는 감정의 명목상의 내용이다. 프린츠에 따르면 모든 핵심관련주제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적 속성이다. 즉 공포라는 감정이 표상하는 “위협”이라는 핵심관련주제는 우리의 반응에 독립적이다. 반면 유인가 표지는 어떤 행동과 관련된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행위자의 가치반응에 의존한 “평가”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쁘다고 표상하는 것은 체현된 평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체 변화를 지각함으로써 표상하는 핵심관련주제들은 좋다 혹은 나쁘다와 같은 선호의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유인가 표지는 특정 감정상태가 좋거나 나쁘다고 하는 평가이다. 프린츠는 우리가 어떻게 감정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를 체현된 평가로 설명하고, 일단 우리가 어떤 감정상태에 처하게 되면 그 감정이 선호할만한지 아닌지를 2차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유인가 표지는 “체현된 평가”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체현된 평가는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평가이며, 이때 감정은 신체의 생리적 변화인 명목적 내용을 지각함으로써 형성된다. 이렇게 감정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그 감정 상태를 강화할 것이지 말 것인지를 다시 평가하게 되는데, 이 때 긍정적인 강화인자는 감정을 보상으로 평가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강화인자는 처벌로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프린츠는 유인가 표지는 메타 평가(meta-appraisal)이라고 주장한다.³⁸⁾

그러나 프린츠는 여기서 평가(appraisal)를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인지적 평가로 보지 않고 제임스주의의 평가 개념을 제안한다. 그가 인지주의의 평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 유인가는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듯 감정이 포함하는 평가적 판단이 갖는 유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프린츠의 제임스주의에 따르면 화는 어떤 사건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지도 않고 모욕을 준 상대방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지

38) Prinz, Ibid., 8,

않는다. 그에 따르면 화는 행위자로 하여금 공격을 준비토록 하는 신체적 변화의 패턴에 대한 지각에 불과하다. 물론 이 때 인지적 평가를 포함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한 사건은 순전히 지각적인 어떤 것(신체에 대한 공격, 욕설, 기분 나쁘게 찌러 봄, 성가신 소리, 등등)이다. 이와 같은 돌연의(불시의) 지각들(그리고 많은 불시의 판단들)은 인지주의자들이 말하는 평가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며, 신체적 상태의 결과도 아니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체현된 평가와 유인가 표지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체변화를 지각함으로써 이루어진 체현된 평가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단계이다. 그리고 이 체현된 평가에 대한 유인가 표지가 그 감정 상태를 지속할 것인지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행동을 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IV. 결론: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는 양가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상과 같은 프린츠의 유인가 이론이 주어졌을 때 유인가 이론은 우리의 문제인 양가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프린츠는 유인가 표지이론은 양가적 유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⁴⁰⁾ 왜냐하면 양가적 감정을 인지주의자들처럼 양가적 판단(믿음)이나 비인지주의자들처럼 “느낌(feeling)”으로 보면 두 상반되는 믿음이나 두 상반되는 느낌은 양립 불가능하므로 설명의 어려움이 있지만, 양가적 태도(ambivalent attitude)로 보면 우리는 이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프린츠는 양가적 태도는 강화인자(reinforcement)나 회피(avoid)와는 다르고, 끌림(tempting)과 동시에 주저함

39) Prinz, Ibid., 9.

40) Prinz, Ibid., 12.

(hesitating)이라는 두 공존적 태도로 보기를 제안한다.⁴¹⁾ 왜냐하면 앞서도 지적했듯이 믿음(판단)의 경우 양립불가능한 두 믿음 중 하나만이 참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만이 성공적일 수 있지만 양립불가능한 욕구나 감정들의 경우 하나만이 유일하게 성공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린츠는 모틴처럼 우리의 등산의 예에서 제시된 동시 공존하는 상반되는 두 감정의 형식적 대상에 관해 답할 필요 없이, 유인가와 처벌 보상 표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예에서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황홀하면서 위험 상황에 대해 위험에 따른 공포에 대해서는 끌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황홀한 경치의 매력적임에 대해 끌림이라는 양가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그 사람의 내적 상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즉 공포를 느끼면서도(처벌 표지 신호 작동) 황홀한 광경에 대한 매력(보상 표지 작동)을 느끼는 내적 상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적 상태는 행위의 동기 즉 행위에 대한 이유가 되긴 하지만, 이 상태에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과 계획이 아직 없다는 점에서 동기화(motivation)와는 구별된다. 이런 점에서 프린츠의 유인가 표지는 동기화(motivation)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가 말하는 유인가 표지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와 같은 내적 상태의 변화에 관련되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와 같은 특정행동의 변화를 말하지는 않는다.⁴²⁾ 필자는 여기서 프린츠가 유인가로서의 감정이 행동의 동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로서 내적 상태에 관해 말해주는 것이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문제인 양가감정은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41) Prinz, Ibid.. 프린츠는 여기서 양가감정의 예로 “노스텔자”를 들면서, 이 경우 양가적 태도를 과거 고향에 대해 “tempting”과 현재의 불만족한 상태에 대해 “depressing”이라는 두 공존적 태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 “등산의 예”에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예의 경우 양가적 태도를 나는 여기서 “tempting”과 “hesitating”으로 들고 있다.

42) Prinz(2004b), 194.

참고문헌

- 양선이(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제 79집, 107-128.
- de Sousa, R.(1987), *The Rationality of Emotion*, Cambridge, Mass., London: IT Press, 543-51.
- _____ (2002), “Emotional Truth”,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76, 247-64.
- _____ (2004), “Emotions: What I Know, What I'd Like to Think I Know, and What I'd Like to Think”, in *Thinking about Feeling*, ed. R. Solomon. Oxford University Press, 61-75.
- Dretske, F.(1986), “Misrepresentation”, In R. Bogdan (ed.), *Belief : Form, Content and Function*, 17-36, Oxford University Press.
- Greenspan, P.(1980), “A Case of Mixed Feelings”, in A. Rorty (ed.), *Explaining Emotions*, 139-161
- Morton, A.(2002), “Emotional Accurac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 Vol. 76: 265-75
- Nussbaum, M. C.(2001), *Upheavals of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inz, J.(2000), “The Duality of Content”, *Philosophical Studies* 100, 1~34.
- _____ (2004a), “Embodied Emotions”, in *Thinking about Feeling*, ed. R. Solom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b),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Vol. 2. No. 1. 5-13.
- Solomon, R. C.(1976), *The Passions*, New York: Doubleday.
- Tappolet, C.(2000), *Emotions et Valeur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_____ (2005), “Ambivalent Emotions and the Perceptual Account of Emotions”, *Analysis* 65, 229-33
- Yang, S.(2009), “Emotion, Intentiona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Emotion: In Defence of Response Dependence Theory”, *The Journal of Organon F*, 82-104.

_____ (2010), "A Defence of the Perceptual Account of Emotion against the alleged Problem of Ambivalent Emotion: Expanding on Tappolet," *Human Affairs*, 210-214.

【Abstract】

In this paper, I consider a problem implicated by the perceptual account of emotions. I shall address this problem by raising the question whether two contrary emotions, for example, fear and delight, can be both present in a single subject. To this end, I shall present an emotionally ambivalent situation such as a dangerous and attractive mountaineering case. This example shows us circumstances in which someone can feel both fear and attraction simultaneously. Contemporary cognitivists have a difficulty in explaining this kind of ambivalent emotion, because they take the object of an emotion to be its propositional content. If an intentional object of emotion is one that has a propositional content, cognitivists might run into a contradictory state, i. e., p&-p, such as the case of delighted horror.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y that cognitivists face, I shall take account of Prinz's non-cognitive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In explaining whether dangerousness and attractiveness are mutually exclusive or not, I utilize Prinz's notion of 'valence.' I shall suggest that Prinz can explain our mountaineering case by identifying valence with reward and punishment markers, which is an unconscious mechanism that exerts influence on behaviour.

【Keywords】 Ambivalent Emotion, Perceptual Theory, Prinz, Embodied Appraisal, Valence Marker

논문 투고일: 2013. 09. 26

심사 완료일: 2013. 10. 15

게재 확정일: 2013. 10. 15

